

앞의 '수량품'에서 석존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입멸이 가까운 석존께서 아득한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미래에도 지금까지의 수명보다 배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 항상 영축산에 계시며 부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수량품'의 내용이다. 이 설법을 들은 대중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얻은 저마다의 공덕을 각각 구별하여 설하신다. 또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미래세에 이 법문을 듣고 함께 기뻐수희, 隨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믿어 간직하며 남에게 읽고 외워 주고 설법해 주는 사람들의 공덕이 설해져 있다. 이것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으로 공덕을 사유(事由) 따라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그 공덕이란 직접적으로 앞의 '수량품'을 들은 공덕이며 넓게는 <법화경> 실천의 공덕이다.

부처님께서 첫머리에 미륵보살을 향해 '수량품'의 법문을 듣고 얻은 공덕을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로 나누어 설하셨다.

1) 6백 80만억 나우타의 항하사와 같은 수의 중생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다는 무생법인, 즉 '공'의 진리를 깨달았다. 2) 그 중생의 천배가 되는 보살들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지녀야 할 기억력인 문지(聞持) 다라니문을 얻었다. 3) 하나의 세계를 아

주 작은 입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들은 자신하여 가르침을 설하되 어떤 장애도 없이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는 요설무애 변재를 얻었다. 4) 하나의 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들이 백천만억 한량없는 가르침을 원만히 익혀 자유자재 한 지혜의 능력인 선(旋) 다라니를 얻었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들은 여덟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8) 네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들은 네 번 다시 태어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9) 세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이 세 번

게 되었다. 12) 여덟 개의 삼천大千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상의 열두 가지이다. 엄청난 수의 보살들 가운데 어떤 보살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으며 어떤 보살들은 몇 번씩이나 다시 태어난 후에 그 깨달음에 도달하며 또 어떤 보살은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을 듣는 사람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허공으로부터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 위에 뿌려졌다. 아울러 다보탑 속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불과 다보불 위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위에도 흩어져 내렸다. 전단과 침수향과 천신들의 옷이 쏟아져 내렸으며 천신들의 북이 스스로 아름답게 울렸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비단 해 가리개를 든 보살이 줄을 이어 범천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한량없는 시를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천태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까지가 <법화경> 본문의 정중본이며 이하 맨 마지막 장인 '권발품' 제28까지의 11품 반이 유통본이다. 여기서 <법화경>을 크게 나누고 이하의 내용은 경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여 설한 것으로 해석한다.



해경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⑥ 분별공덕품 17

복덕의 구분



부처님 공덕 12가지로 나눠 설해 듣는 사람 능력에 따라 복덕얻어

다. 5) 3천大千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이 번뇌를 깨뜨리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6) 중천 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들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7) 소천세계를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0) 두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이 두 번 다시 태어난 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1) 한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권의 보살이 한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

그대들 여러 곳에서는 '뒤를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씀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설사 뒤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얻 짓는 일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만행(六度萬行)을 고루 뒤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역시 모두가 얻 짓는 일이다.

부처를 찾고 법을 찾는 것은 곧 지옥 같은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찾는 것 역시 업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 짓는 일이다.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류유위(有漏有爲)와 무류무위(無漏無爲)가 모두 청정한 업이 되는 것이다.

어떤 눈먼 중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 관행(坐禪觀行)을 하여, 생각을 꼭 쥐고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을 찾으나, 이것은 의도(外道)의 법이다. 조사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마음을 멈추고 고요함을 살피며, 마음을 들어서 밖으로 비추고 마음을 붙잡아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삼매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을 뒤졌으며 깨달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②

뒤로도 깨달음도 없다

졌으며 장엄하겠는가? 그 사람은 뒤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장엄하게 한다면 모든 것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거나, 하나의 관념적 대상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육체의 어떤 부위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자기 암시적인 문구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암송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하는 등등이다. 물론 여기에는 육체적인 수련이 동반

'눈(眼)'으로는 눈을 볼 수 없다

할 때에는 반드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행한다. 그 목적이 어떤 생각을 추구하는 때든, 어떤 동작을 취하려는 때든, 늘 그렇다. 이 점은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마음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음공부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한다. 그 방법들은 대개 의도적으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여 생각이

되기도 한다. 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런 의도적인 행위들은 모두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의식을 움직이고 육체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미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마음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의식과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이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적 수행이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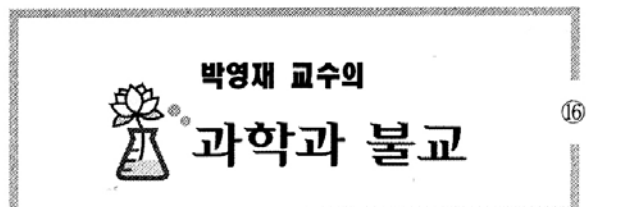
찾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마음을 찾는 일이란 비유하여 말하면, 눈(眼)을 찾는 일과 같다. 눈은 항상 자기 밖의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을 볼 수는 없다. 눈이 자신을 찾기 위하여 온갖 곳을 두리번거리거나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나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눈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이 눈을 찾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보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다는 행위가 바로 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본다는 행위만으로 눈의 존재는 드러난다.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식이 활동하는 순간 마음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음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길은 의식의 활동일 뿐이고, 의식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김태완·부신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선어록 강좌 안내
부신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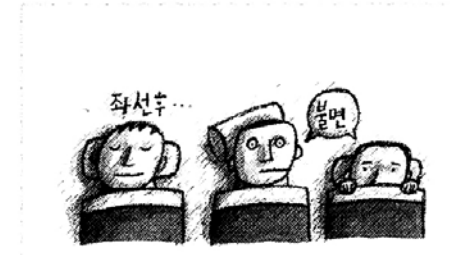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속면과 좌일주칠(坐一走七)

인간의 일생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이 거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즐겁고 깊게 자는 '속면(熟眠)'은 '호식(好食)' 및 '쾌변(快便)'과 함께 장수의 3대 비결 중 하나다. 대개 수면(睡眠)은 인구가 빠르게 움직이며 꿈을 꾸는 렘(REM: Rapid Eye Movement) 상태와 그렇지 않은 논렘(NREM: Non-Rapid Eye Movement) 상태로 구분된다. 논렘 상태는 다시, 쉽게 깨울 수 있는 1-2단계 수면과 좀처럼 깨우기 어려운 3-4단계 수면으로 나뉘어진다. 정상적인 수면은 1-2 단계에서부터 3-4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은 잠자는 동안 3-5회 반복된다. 한편 인류는 토마스 에디슨(정작 본

불안감 및 악몽 등으로 야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면증 관련 시장규모가 2001년 18조 8000억원(14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수면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면시 1주일에 하루 이상 불면증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테러 이전에는 19%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에는 75%로 급증했다고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예방차원에서부터 3-4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은 잠자는 동안 3-5회 반복된다. 한편 인류는 토마스 에디슨(정작 본



후자인 불교수행자의 경우 알맞은 식사와 함께 하루하루 규칙적인 수행생활 속에서 속면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이나 보조요법을 쓰거나 따로 지키려고 애쓸 조목조목 필요가 없다. 굳이 이런 수행태도를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좌일주칠(坐一走七)'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선어(禪語)는 깨어있는 16시간 중 2시간 정도 좌선 하고(坐) 14시간 주어진 하루 일과에

적당한 식사·규칙적 생활 속면가능케 깨어있는 시간중 좌선2·일과 14시간

인인 낮잠을 즐기며, 1879년 전구를 발명한 이후 점점 더 잠자는 시간을 단축시켜왔다. 그러다가 현대인들은 점점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잃어버리고 매우 심각한 불면증(불면 원시시대에는 인류의 생존수단이기도 했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체력을 기르고 정보를 보관 및 재정리하며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한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체력 저하, 판단력 둔화 및 졸음이 이어지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윌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스트레스,

100% 뛰어들다(虎)라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하루에 2시간 좌선한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나머지 14시간 가운데 출퇴근 2시간과 휴식을 포함한 식사 시간 3시간 정도를 제외해도 충분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9시간 정도가 남는다. 필자의 경우 종말 이후의 노사 문화에 입문해 매일 아침 1시간 좌선, 저녁 1시간 좌선을 통한 간화선 수행을 지속하여 10년이 지나자 '속면'과 '좌일주칠'을 반복하며 일상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좌일주칠坐一走七) 서강대 물리학과 ypark@ccs.sogang.ac.kr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불교관음대성종</p> <p style="text-align: center;">종 정 석법산 총무원장 석정산 신도일동합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708-486 전화 02)594-6211, 587-6211</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석종후 신도회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 353-5016, 4924 FAX : 02) 386-4198</p>	<p style="text-align: center;">광운정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청운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운불교대학</p> <p style="text-align: center;">■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9-8966</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신도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전화 041-561-3545 / 팩스 041-556-1425</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 조계종 내소사</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주 우암 주 지 진원 사부대중 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p>	<p style="text-align: center;">정각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도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 742-1231</p>	<p style="text-align: center;">수미산 불국사</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주 연봉 태현 주 지 가섭 사부대중 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 1리 573 전화 031)441-0408</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 총화종 정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이기태 신도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인천시 남구 송의4동 13번지 13호 7통 5번 전화 032)875-5280, 3459</p>
<p style="text-align: center;">강화 전 등사</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주 장운 주 지 계성 신도회장 윤재상</p> <p style="text-align: center;">사부대중 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 937-0125,0025 FAX 032) 937-5450 www.jeondeungsa.org</p>			